



### '가을에 떠나는 미술산책' 11-23일 미술주간

10월을 맞아 '미술은 삶과 함께(Art in Life)'라는 주제로 11일부터 23일까지 미술주간이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진지 관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술행사를 연계 마련해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2016 미술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미술(Like! Art)'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올해 미술주간은 미술관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박물관화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국·공·사립미술관을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한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미술을 알기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공·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 3대(광주, 부산, 서울) 비엔날레 등 100여 개의 미술공간과 협력해 13일 간 열리는 특별 전시와 감명 깊은 현대 미술작품을 소개한다.

전국 40개 사립미술관에서는 전시 연계 토크쇼 이벤트 '#좋아요 #미술관스파터럴'을 실시해 SNS에 사전을 올리는 관람객들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미술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증정한다.

전국 30여 개 비엔날레공간에서도 관람객 참여 이벤트를 SNS에 올린 관람객들에게 당일 발송을 통해 미술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증정한다.

'미술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아트페어도 개최된다. 세계 16개국 170개 화랑(갤러리)이 참여한 수많은 미술작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고 미술작품을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2016 한국국제아트페어'가 미술주간 동안 열린다.

특히 이번 미술주간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아트페어를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갤러리 쇼케이스 전시와 국제 페널 토론회, 축하연회, 미술관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6개 작가비엔날레도 준비돼 있다.

지난 9월 초부터 일제히 개막한 서울·광주·부산 비엔날레가 이번 미술주간 동안 특별한 이벤트를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서울 비엔날레의 '세미(SEMA) 비엔날레 미디어 시터서움'에서는 작가 구수현, 작가 안민욱, 작가 에우아르도 나바로 등이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광주비엔날레는 '워크 & 토크(Walk & Talk)' 세미나와 전시 관람, '좋아요 미술! -광주비엔날레 이미지 컬렉션'과 '누리스 퉁방(SNS) 인증샷 이벤트', '드론을 이용한 홀로코스트 퍼포먼스' 등을 준비했다.

부산비엔날레는 23일 맥토리(T)1963에서 '모바일 키친 오픈 레서피 인 부산: 전파 맛나게'와 '공공파티 나나네: 화끈하게'를 펼쳐며 '2016 미술주간'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한다.

2016 미술주간에서 올해의 미술도시로 선정된 대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풍성한 미술이 이야기로 관객들과 만난다.

## 안전 몸소 체험하고 배워요

### 인천산곡복초,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 현장체험학습

인천산곡복초등학교(교장 신미혜) 6학년은 9월 30일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보라매 안전체험관에 도착하자 소방관께서 우리나라의 재해 현황과 재해의 무서움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후 조를 나눠 입체 4D 영상 관람, 지진 체험과 대피 훈련을 했다. 지진체험은 모든 학생이 한 번씩 지진 7.0 규모를 경험해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

지진체험이 끝난 후에는 대풍체험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대풍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안전이 안 되고 학교가 린든 줄 뿔뿔다

며 대풍의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왔다. 대풍 체험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라매에서의 화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과 소화기 사용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자동차 안에서 교통사고 안전 체험, 지하공간에서의 화재 체험 등 다양하고 유익한 안전체험학습이 이어졌다.

안전체험학습을 한 6학년 한 학생은 "직접 이렇게 안전체험을 해보니까 평소엔 위험성을 몰랐던 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체험 소감을 전했다.

인천일보 기자 as@



## 행복한 우리학교 모습 널리 알리다

### 인천산곡복초 '이름다운교육상' '최우수상' 수상

인천산곡복초등학교(교장 김현숙)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주관한 제17회 '아름다운교육상' 대회에서 인천지역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아름다운교육상' 시상식은 배운과 나눔의 아름다운 학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학교와 아름다운 교육자, 아름다운 스승을 발굴해 이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더욱 따뜻하고 미래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대회로써, 200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7회 대회까지 전국의 많은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다.

인천산곡복초는 2016년도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교육부 지정 인성교육 시범학교(초등)로 지정돼 '만져지는 감성 : 산곡남

가운렐 레서피(Re.C.P) - 인성 중심주의 교육과정 확고과 교육공동체 혁신'을 주제로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잘 가꾸어진 학교 숲을 이용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바탕적인 인성 함양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수상소식을 들은 인천산곡복초 학부모회장 한선정 씨는 "평소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하나 되 소통을 아낌없이 기울여 즐겁게 배우고 있는 우리 학교의 교육이 큰 성과로웠는데 전국적인 대회를 통한 이번 수상소식을 계기로, 행복한 우리 학교의 모습과 교육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인천일보 기자 as@

## 숲 속에서 나의 모습 찾다!

### 장성성산초, 힐링 야영수련활동

전남 장성성산초등학교(교장 오광자)는 4~6학년 학생들이 10월 4일부터 1박 2일로 백운야영장으로 수련활동 다녀왔다. 백운산 숲 체험을 통해 대자연 속에서 도전, 탐험, 공감, 힐링을 주제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데인관계와 리더십을 길러주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주인은 나임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정규의 법칙 창의적인 움직임 통해 조상들의 생활을 경험하고, 조별로 머리를 맞대며 공동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예코 골든벨 활동, 함께하는 숲속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연습하며 가족과 친구의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배웠다.

수련활동에 참가한 5학년 학생은 "숲 속 응급 처치 활동이 처음이라 어렵고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격려하며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친구들과 함께 요리해서 먹는 뷔페만큼 최고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광자 교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도전활동을 통해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키워 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w@

## '두근두근 쿵광광 책이랑 놀자!'

### 장성 북이초, 10월 5일 책잔치 날 운영



장성군 북이초등학교(교장 김현)는 지난 10월 5일 하루를 '두근두근 쿵광광 책이랑 놀자!'라는 주제로 책잔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북새통 학부모회와 어린이도서관 연구회 광주지부 학부모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풍부한 정서와 생각하는 힘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고, 이후 지속적인 독서생활에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고자 실시했다.

독서의 즐거움과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책을 읽고 학년 특성에 맞

는 독후감작성, 그리기, 그림책 '김수환부 그림자극' 관람, 부스체험으로 진행되었고 2부 행사는 생태대와 '날아라 뱀박아!'를 지은 권오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생태계 보호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생태태를 제작하여 학교 숲속도서관에 설치하는 활동을 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친 학생들은 "즐거움이 호랑이 책을 읽고 등장하는 호랑이를 직접 그리보니까 마치 내가 책의 주인공 같아요", "그림자극을 보니까 책이 읽었던 것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권오준 작가님께서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 책을 지었다는 말씀을 듣고 나도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로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김현 교장은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개별비라기도서관, 숲속도서관, 주제전시 등 재능을 기부해주는 자원봉사자들과 이번 행사를 더욱으로 후원하신 어린이독서연구회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평소 독서를 지루하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하는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w@

창당동 도심형 품격주택

신원아파트도 마인 근린생활시설 분양안내

# 창당동의 대박!

국내 유일의 최고급 빌라단지 정중앙!  
최고의 입지! 파격적 조건! 합리적 가격!  
모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유치원 입점

SAT센터 입점

어린이집 입점

SOP200 입점

국기대표 상점

창당대표상가 신원아파트도 마인

02) 540-1160

## 국세증명 13종, 세무서 방문없이 발급받는다

### 행자부-국세청 협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앞으로는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서류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원거리에서 위치한 세무서를 찾아가야 했던 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

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세증명민원을 포함하여 총 79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발급방법 등은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상 '1인 세대' 739만으로 최다

주민등록 통계상 세대원이 1명인 '1인 세대'가 739만에 육박해 전체 세대의 34.8%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체 2121만 4428 세대 가운데 1인 세대는 738만 896세대로 34.8%를 차지했다.

이여 2인 세대 21.3%, 4인 세대 18.7%, 3인 세대 18.5%, 5인 세대 5.1%, 6인 세대 1.2%, 7인 이상 세대 0.4% 등 순이었다.

1인 세대는 주민등록 인구DB를 전산적으로 처리한 2008년부터 가장 비중이 높은 세대(31.6%) 유형이었으며 2010년 33.3%, 2014년 34.0%, 올해 9월 3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인 세대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19.7%로 가장 많았고 40대 17.5%, 30대 17.1%, 60대 14.9% 순으로 나타났다.

만 17세 미만인 1인 세대는 8918세대(0.1%)가 있으며 만 100세 이상은 1만 2438세대(0.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당 인구는 2.4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 424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3만 4906명(0.26%) 늘었다. 지난 8월에 비해서는 1만 4692명(0.03%) 증가했다.

여자는 지난해 6월 이후 남자 인구를 초과해 9월 말에는 남자 2581만 5202명 보다 3만 3840명 더 많은 2584만 9042명(50.03%)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경기(141만 3672명), 세종(2만 5250명), 인천(1만 4621명), 제주(1만 3804명), 충남(1만 2182명) 등 8개 시도의 인구는 늘었다.

시군구에서는 경기 화성(3만 3826명)과 경기 하남(3만 218명), 대구 달성(1만 8537명), 부산 강서(1만 1175명), 경남 양산(1만 291명) 등 8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5만 7890명), 부산(-7956명), 전남(-6919명), 전북(-4882명), 대전(-2534명), 대구(-2137명) 등 9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

시군구에서는 서울 강동(-1만 777명)과 대구 달서(-7090명), 서울 강남(-6543명), 서울 성북(-5591명), 경기 안산(-5524명) 등 14개 지역의 인구가 줄었다.